

# '실록'에 버금가는 정부 공식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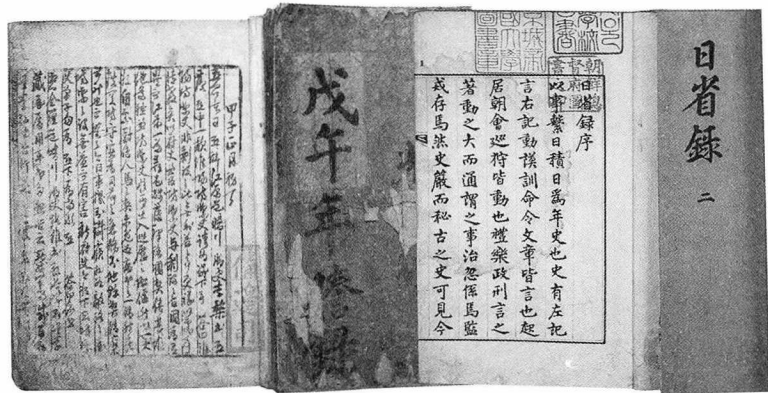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 등... '실록' 편찬의 기본사료

조선시대의 관변사료(官邊史料)로서는 《조선왕조실록》이 첫손에 꼽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에 《비변사등록》·《일성록》과 《승정원일기》가 있다.

조선시대의 통치체제 내지 행정체제는 요즘 안목으로 봐도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비서실격인 승정원이 있어 왕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원로대신들의 합의체인 의정부(議政府)가 최고정책기관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에 따른 행정실무는 6조(六曹)에서 집행하며, 언관(言官)의 기능을 가진 3사(三司=사헌부·사간원·홍문관)가 이를 감시·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물론 시대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나 권한에 다소간의 신축성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의정부의 경우는 16세기 이후 그 권한이 국가최고의결기관인 비변사(備邊司)로 넘어감으로써 한동안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 당초 비변사는 조선중기에 들어 남쪽의 왜구와 북쪽 여진의 창궐로 변경이 위협받게 되자 국가안보대책을 위한 비상기구로 중종(1506~1544)때 임시적으로 설치됐던 것이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방·외교는 물론 국내정치 전반을 다루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강화되었던 것이다.

《비변사등록(臚錄)》(필사본·국보 152호)은 바로 이 비변사에서 그때그때 처결한 안건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인 만큼 사료적인



《비변사등록》(국보 152호)과 《일성록》(국보 153호·원쪽). 서울대 규장각 소장.

가치가 매우 높으며,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등록은 1년에 한권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건이 많을 때는 2~3권씩 작성하기도 했는데, 앞부분과 중간에 없어진 부분이 있는 채로 현재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의 273책이 남아 있다.

《비변사등록》에 못지않게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필사본)이다. 승정원은 도승지와 좌·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6인의 승지로 구성되었는데, 국왕의 비서실격이라고는 하지만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 TV드라마에서 보듯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일이 주임무였다. 그러나 왕권이 강했던 시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에는 정3품인 6인의 승지 외에 정7품의 주서(注書)가 두사람 있어서, 이들이 그날그날의

왕명출납과 그밖의 공사(公事)를 기록했다가 매일 단위로 다시 정리해 국왕의 재가(결재)를 받았다. 승정원이 처음 생긴 것은 태종 때였는데, 《일기》의 조선전기 부분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등으로 불타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까지의 3,047책이다.

이 둘에 비해 《일성록(日省錄)》(필사본·국보 153호)은 주로 국왕의 동정을 중심으로 국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 일기는 정조 임금이 세손(世孫)이었을 때부터 개인기록으로 쓰기 시작한 것인데, 뒤에는 규장각 신하들이 날짜별로 정리하여 월별로 국왕의 재가를 받는 식으로 국가의 공식기록이 되었다. 현재 1760년(영조 36)부터 1910년(융희 4)까지 150년치 2,327책이 전하는데, 특히 일제에 의해 '실록'이 편찬된 고종·순종 연간의 역사는 이 《일성록》이 사료로서 큰 몫을 한다. (W)

# 출판저널

통권 제222호 / 1997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공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표지 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5448-5420,  
 F.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항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좋은 느낌

**빈/칸/만/들/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 (22호)  
 40,000원  
 \* 반년분 (11호)  
 22,000원